

보도자료

2011년 12월 29일(목) 08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조경식 과장(☎750-1610)
 기획재정담당관실 강도성 서기관(☎750-1611) dskang@kcc.go.kr
 기획재정담당관실 마재욱 사무관(☎750-1624) jwma@kcc.go.kr

“대한민국을 스마트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겠습니다”

디지털 전환 성공적 완료,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, 신산업 및 벤처 활성화 등 3대 주요과제 추진

- 방송통신위원회,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-

< 주요 내용 >

- ◆ 국민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한 직접수신가구 정부지원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
- ◆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해소하고, 본인확인제 재검토 등 건전한 소통사회와 인터넷 윤리문화를 정착시켜 IT선진국의 기틀을 견고히 하겠습니다.
- ◆ 스마트 新산업을 육성하고, 중소 벤처육성,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.

- 방송통신위원회는 12.29.(목) 오전 8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(서울 세종로)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음.

< 업무보고 개요 >

- 일 시 : '11.12.29.(목) 08:00 ~ 09:30
- 장 소 :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(3층)
- 참석자 : 160여명(관련 공무원 등 140명, 업계·전문가 20여명)

□ 이번 업무보고회는 대민·현장 담당자와 특수업무 담당자 등 정책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무관과 주무관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방송통신 현안 중심으로 진행되었음.

○ 보고회는 “스마트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송통신 핵심 과제”에 대한 발표에 이어,

- 「본격적인 스마트시대,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?」를 주제로
- 먼저, ‘IT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’란 소주제로 스마트폰 대중화의 의미와 신서비스인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모색하였으며,
- ‘세계의 초일류 창조기업 - 한국의 애플, 구글은?’ 이란 소주제로 국내외 벤처산업 환경을 비교·분석하고, 벤처 대표들의 경험담을 통해 정부 지원방안과 패자 부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었음.

□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, 지난 4년간의 방송통신 분야 성과로

○ 스마트폰 2천만시대 개막,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 가입자 450만 돌파, 그리고 종편·보도채널 방송개시 등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등을 제시함.

○ 반면에 방송시장의 경쟁·갈등 심화로 인한 국민의 TV시청에 불편을 초래한 점,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,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.

□ 방통위는 스마트시대의 본격 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함께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「방송통신 핵심과제」를 선정·추진키로 함.

○ 특히,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완료, 건전한 소통사회 구현, 방송통신 신산업과 중소벤처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함.

<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 >

1. 성공적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
2.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
3.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·콘텐츠 경쟁력 제고

【별첨1】 주요과제 요약

【별첨2】 스마트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「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」

[별첨 1] 주요과제 요약

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완료

☞ 전 국민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고 '12.12.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 개막

- (계층별 맞춤지원)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 추진

< 직접수신가구 계층별 지원 내용 >

- (저소득층) DTV 구매 보조(10만원) 또는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
- (일반가구) 디지털컨버터 대여(대여금 2만원), 안테나 설치비 일부지원(자부담 3만원)
- (노인·장애인) 디지털컨버터 대여(대여금 2만원), 컨버터·안테나 설치 무상지원

- (수신환경 개선)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보조국 디지털화, 소출력 중계기 구축 등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 추진
- (자막고지·가상종료)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 대상으로 매일 자막고지방송 실시('12.1월~)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%이상 지역부터 가상종료 추진('12.7월~)
- (시청자불편 최소화) 아날로그방송 종료 전후시점('11.12~12.1월)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콜센터 인력확충, 지원센터 비상근무체제 전환

■ 안전한 사이버환경 및 건전한 소통사회 실현

☞ **개인정보보호 강화, 해킹사고 선제적 대응, 본인확인제 재검토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이버 환경 조성**

- (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)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과 피해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·이용을 '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·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·추진
- (개인정보 유·노출 피해방지) 국내 100대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 구축
- (해킹사고 선제적 대응) 악성코드 사전 점검체계 강화, 대응 설비 증설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, 기업 정보보호 체질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IT보안정책 글로벌 리더십 강화
- (본인확인제 재검토) 소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·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, 향후 제도개선 방향·보완방안 검토
- (인터넷윤리 학교 교육 강화)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교과부와 협의하여 학교별 인터넷 윤리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, 교과서 내 인터넷윤리 반영과 교육콘텐츠 지원 강화
- (인터넷기업의 자정 역할 확대)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환경 조성, 모범기업 포상, 이용자 캠페인 등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정노력 강화

신산업과 벤처를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

☞ SW·콘텐츠·애플리케이션 분야 중소벤처 및 1인 창조기업
활성화 등 젊은 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

- (방송통신 분야 고용전망) '12년도 방송통신 분야 고용은 LTE 전국망 구축, 모바일 앱 시장 성장, 스마트 기기 확산, 1인 창조기업 증가 등에 따라 '11년 대비 10,300명이 증가할 전망
- (일자리 창출 대책) 1인 기업 등 창업지원,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,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
 - (창업지원 인프라 구축) 인터넷·모바일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'K-스타트업'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5개 광역권별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를 구축
 - (중소벤처 기술 및 자금 지원)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, 기기 시험인증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, 유무선 콘텐츠 등 분야의 유망 벤처에 Korea IT Fund 투자

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

☞ LTE서비스 전국 확대, 투자확대 유도, 신규 주파수 확보 등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

- (LTE서비스 전국확대)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가 개시('11.7월)된 LTE서비스를 '12년 중 전국으로 확대 추진
- (Giga인터넷 상용서비스) BcN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시범 서비스 대상을 확대(2,000 → 4,000가구)하고, CJ헬로비전('11.9월)에 이어 통신사까지 상용서비스 도입을 확대 추진
- (전파사용료 감면)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신규 서비스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 인하 추진
- (망 중립성)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기본 원칙인 가이드라인 시행
- (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)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'20년까지 최대 650MHz폭의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